



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http://www.emerics.org/ 2018. 10. 12. 인도·남아시아	「이슈&트렌드」
	인도, 수입 품목 관세 인상 배경과 전망
	작성 김도연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)

- 9월 26일 인도 재무부는 에어컨, 냉장고 등 19가지의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.
 - 수입 현황 조사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선별된 ‘비 필수 품목(non-essential items)’ 이며, 2017-18 회계 연도 기준 해당 품목의 수입 총액은 약 118억 달러로 인도 전체 수입의 2.46%의 비중을 차지
 -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9월 27일부터 발효

표 1. 관세 인상 품목 및 변동 내역

	주요내용	관세 변동
1	에어컨	10% → 20%
2	가정용 냉장고	10% → 20%
3	10Kg 미만의 세탁기	10% → 20%
4	에어컨 및 냉장고용 콤프레셔	7.5% → 10%
5	스피커	10% → 15%
6	신발류	20% → 25%
7	래디얼 타이어	10% → 15%
8	비산업용 다이아몬드 (가공-연마)	5% → 7.5%
9	반가공 혹은 파손된 다이아몬드	5% → 7.5%
10	인공 다이아몬드	5% → 7.5%
11	가공-연마된 색조 보석류	5% → 7.5%
12	보석류	15% → 20%
13	금은세공품류	15% → 20%
14	플라스틱 욕조, 싱크, 세면기 등	10% → 15%
15	박스, 케이스, 컨테이너, 병 등 플라스틱 운송 및 포장재	10% → 15%
16	플라스틱 식탁용 식기류 및 주방용품	10% → 15%
17	기타 플라스틱 사무용품, 가구부속품, 화장판, 소형 조각상, 구슬, 팔찌 등	10% → 15%
18	트렁크, 여행가방, 서류가방, 여행가방 등 가방류	10% → 15%
19	항공유	0% → 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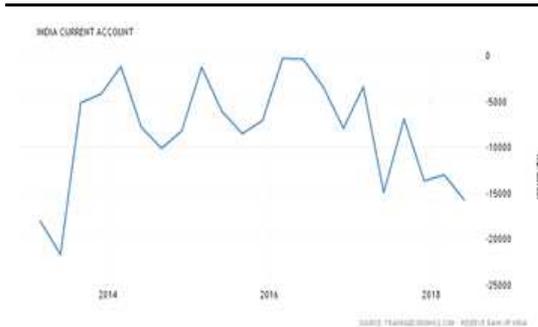
자료: 인도 재무부

- 이번 관세 인상은 수입을 억제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고, 루피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.
 - 달러 대비 루피 환율은 지난 8월 말 처음으로 70 루피 선을 돌파¹⁾한 이후 10월 3일 기준 사상 최저인 73.41을 기록하는 등 2018년 들어 약 14% 하락
 -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2018/19 회계연도 일사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158억 달러로 직전 년도 동기대비 8억 달러가 증가해 GDP의 1.9%까지 확대되었으며, 무디스는 올해 말까지 2.8%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

1) 연관 자료: 윤지현(2018.9.6.). 인도 루피화 환율, 달러 대비 사상 최고점 경신, 동향 세미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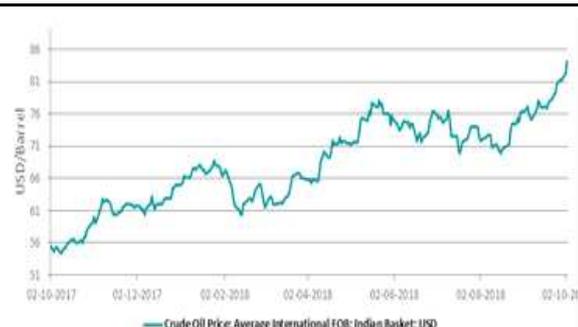
- 원유 수입 관련 지출이 가격 상승과 루피 하락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, 2018년 4~7월 동안의 원유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/3 증가한 390억 달러
-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소비국이자 수요분의 80%를 수입에 의존²⁾

그림1. 경상 수지(최근 5년)



자료: Trading Economics(검색일: 2018.10.4.)

그림2. 인도 원유 바스켓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10.4.)

- 최근 인도의 대외 경제 환경은 모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관세 인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팽배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추가 금리 인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며 환율 안정화에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
 - 인도 섀넥스 지수는 4일 장중 800 포인트가 폭락했으며 니프티 지수도 10,700 이하로 하락
 - 9월에는 유가 인상에 따른 민생고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, 인도 최고의 축제 중 하나인 디왈리(Diwali)를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³⁾
 -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0.25%p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, 관련 전문가들은 인상 확정을 전망⁴⁾
 -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을 통한 조세 수입은 4,000crore 루피(약 5억 5천만 달러)로, ICRA의 Aditi Nay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⁵⁾
 - 한편, 인도 수출 업계는 관련 제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
 - 인도 신발 산업의 대표 격인 Farida 그룹의 Rafeeqe Ahmed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수입품으로 도배된 국내 시장에서의 인도 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 이라고 언급
 - 코트라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관련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18년 500만 달러 이하로,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**EMERiCs**

참고자료

인도재무부, Economic Times, Business Standard 등

- 2) 인도는 2016-17 회계연도 기준 213.93(MT) 원유를 수입했으며 877억 달러를 지출, 주요 수입원은 사우디 아라비아 20%, 이라크 16%, 이란 11%
- 3) Rediff지에 따르면 2016년 디왈리 축제 기간 동안 인도 소비자들은 총 20,000crore 규모의 지출을 기록
- 4) 10월 5일(금)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인도 중앙은행은 여론과는 반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, 참고 자료: 윤지현(2018.6.20.) 인도중앙은행,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, 동향세미나
- 5) Government hikes customs duty on 19 items to curb widening CAD, economictimes.indiatimes.com/articleshow/65968379.cms?utm_source=contentofinterest&utm_medium=text&utm_campaign=cppst